

교동도 지역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 기본구상 및 계획

이예린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I. 서론

오늘날에는 환경 문제들이 대두되면서 자연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이러한 관심은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관광분야에서도 지속가능한 관광이라는 새로운 형태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현재 우수한 자연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국민 소득과도 연관을 지을 수 있는데, 과거 국민 소득이 적었을 때는 저렴하고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장소 관람형 관광형태였고, 차츰 힐링 여행이 인기를 얻으며 오늘날에는 직접 참여하고 느끼는 관광형태로 변화했고, 이는 생태관광의 붐을 일으켰다.

II. 이론적 고찰

교동도는 오늘날의 뜨는 관광지의 선택사항에 모두 적합한 장소이다. 그 이유는 첫째, 교동도는 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둘째, 북한과 가장 가까운 남한의 섬이라는 것이다. 교동도는 생태 관광과 DMZ 관광을 동시에 느낄 수 있음과 동시에 수도권에서 2시간이면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어 위치적으로든 관광자원으로도든 뛰어난 섬이다.

교동도는 최근까지만 해도 황해도 연백군에서 들려오는 대남 방송과 교동도 대북 방송 확성기 소음으로 시끄러웠지만, 지난해 4월 27일 판문점 선언 이후 55년 만에 조용해졌다¹⁾. 교동도는 북한과의 거리가 고작 2.6km에 불과하며, 남한의 섬 중 가장 북쪽에 면해 있는 섬으로 현재에도 북한과 군사분계선을 이르고 있는 섬이며, 과거 고려부터 조선 말기까지는 유배의 섬으로 불렸으나, 현재는 황해도 연백에서 피난 온 실향민들이 대거 거주하고 있어 실향민의 섬으로 불리고 있다. 이렇게 교동도는 남한과 북한과 밀접하다는 점, 실향민들이 교동도 주민과 어우러져 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최근 북한과의 관계가 점차 완화되고 있다는 점을 활용하여 더 이상 실향민의 섬이 아닌 '평화의 섬'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동도에 대한 사업들, 평화의 섬 만들기 프로젝트, 가보고 싶은 추억의 교동섬 만들기 사업, 관광자원화 사업 등이 진행되었지만, 이는 모두 도로 개선 혹은 오래된 지붕 고치기 등의 가벼운 사업으로 끝나기 일쑤였

다. 또한, 주민과의 인터뷰에서는 교동도의 대표 관광지인 교동시장을 위해 지어진 시설인 제비집에 대해 시장과 직접적인 연결 혹은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교동도에 관련한 사업들이 오랜 시간을 거쳐 진행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관광의 형태의 추세가 관람형 관광이 아닌 직접 참여하고 느끼는 관광형태로 변화하고 있듯, 이제는 더 이상 전문가들의 시점이 아닌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수립하여 공간의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 또한, 이미 현존하고 있는 관광지를 계속해서 리모델링하는 계획들이 아닌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다른 접경지역 섬들과의 연결 방안을 고안해야 한다. 교동도는 접경지역의 섬으로 첫 단추를 끼우는 곳이 될 것이다.

III. 설계 대상지 및 니즈 분석

이에 본 연구는 교동도 지역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 계획을 진행하였다. 지역자원으로는 교동도의 생태와 주변의 섬을 활용하였으며, 지형, 식생, 어류와 조류 그리고 교동도 외의 8개의 다른 접경지역 섬들의 네트워크 구상 방안을 제안하였다.

연구를 통해 발견한 지형은 인공수로, 염생습지, 모래해안, 저수지, 해석에, 간석지가 있으며, 한강하구가 위치하여 있어 해양특성도 다양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심은 제일 높게는 21m이지만, 대부분 10m 미만의 낮은 수심을 보이며, 탁도가 높아 수심 20cm 아래로는 보이지 않는다.

교동도 출현 식물 중 많은 분류군이 출현한 과는 국화과로 10.4%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벼 9.3%, 장미과 5.2% 그리고 백합과와 콩과가 각각 4.1%로 나타났다²⁾. 다수의 회귀식물도 찾아볼 수 있었고, 그 종류로는 벚풀, 쥐방울덩굴, 창포 등이 있었으며, 특산식물은 개나리, 고광나무, 병꽃나무, 은사시나무, 호랑버들 등이 있었다. 귀화외래식물은 44분류로 출현식물의 비율의 12%를 차지하였다. 식물뿐 아닌 다양한 종류의 조류와 어류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조류로는 다수의 멸종위기 종과 천연기념물 조류를 발견할 수 있었다. 발견된 총 개체 수는 22,425마리이며, 29종이 발견되었다³⁾. 또한, 상당히 많은 개체수의 철새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이유로는 농경지와 갯벌이 다른 섬들에 비해

면적이 넓기 때문에 그들이 서식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이다. 어류는 바다에 사는 해산종과 강에 사는 담수종이 출현하고 있으며, 하구에서만 서식하는 기수종도 출현하며, 강과 바다를 왕래하는 회유성 종류도 다수 출현하고 있다.

IV. 교동도 생태 관광 계획

계획의 기본 구상은 자연을 기반으로 설정하였다. 교동도는 지난 몇 년간 꾸준히 평화의 섬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본 연구는 평화를 단순한 남북한의 통일평화의 차원에서가 아닌 자연을 활용한 평화로 의미설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기본 구상은 첫째, '자연과 함께 공존하는 섬', 둘째, '자연으로 치유할 수 있는 섬'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연과 가까워질 수 있는 섬'이다.

자연자원 활용방안은 지형 및 해양의 경우 해안길 조성에 활용하였으며, 식생은 생태숲길 조성, 조류와 어류의 경우 관찰전망대를 설치하였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지역은 봉소리, 난정리, 고구리, 상용리, 읍내리로 총 7개의 지역이다.

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구상을 하였으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로 나누었다. 소프트웨어에는 교육, 조망, 체험, 참여 등 프로그램 위주이며, 하드웨어는 전망대, 생태길, 해안길, 교육관이 포함된 물질적 공간이다. 이 프로그램들은 각각 기본 구상에

서 나는 '공존', '치유' 그리고 '친밀'존(zone)에 배치되었다. 공존존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이 공간에는 통일평화, 전시, 역사 그리고 생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치유존에는 생태치유의 숲, 조류관찰전망대, 어류관찰전망대, 해안/생태길과 쉼터를 조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치유존은 박물관, 미술관, 생태체험학습장, 문화체험학습장, 세미나실 그리고 스티디실로 교육에 관련된 공간이 조성되었다.

이와 같이 진행된 본 연구는 교동도의 표면에서 겹돌고 있는 관광활성화 계획들이 좀 더 교동도의 깊숙한 내면까지 바라본 후 교동도 본연의 자원들을 활용해야 함을 주장하며, 교동도 생태관광활성화 계획을 진행함과 동시에 교동도 지역자원들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본 연구의 공간은 접경지역으로 충분한 자료수집이 어려워 현황 파악에 한계점을 갖는다. 수치지도의 경우, 본 연구의 이유만으로는 받을 수 없어 연구자 본인이 직접 작성함에 따라 정확성이 다소 떨어져 실제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연구자 한명으로는 두 개 이상의 직업을 가지고 바쁘게 사는 주민들을 만나 인터뷰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향후에는 제공되는 정확한 수치지도와 다양한 생태연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V. 마스터플랜 및 매니지먼트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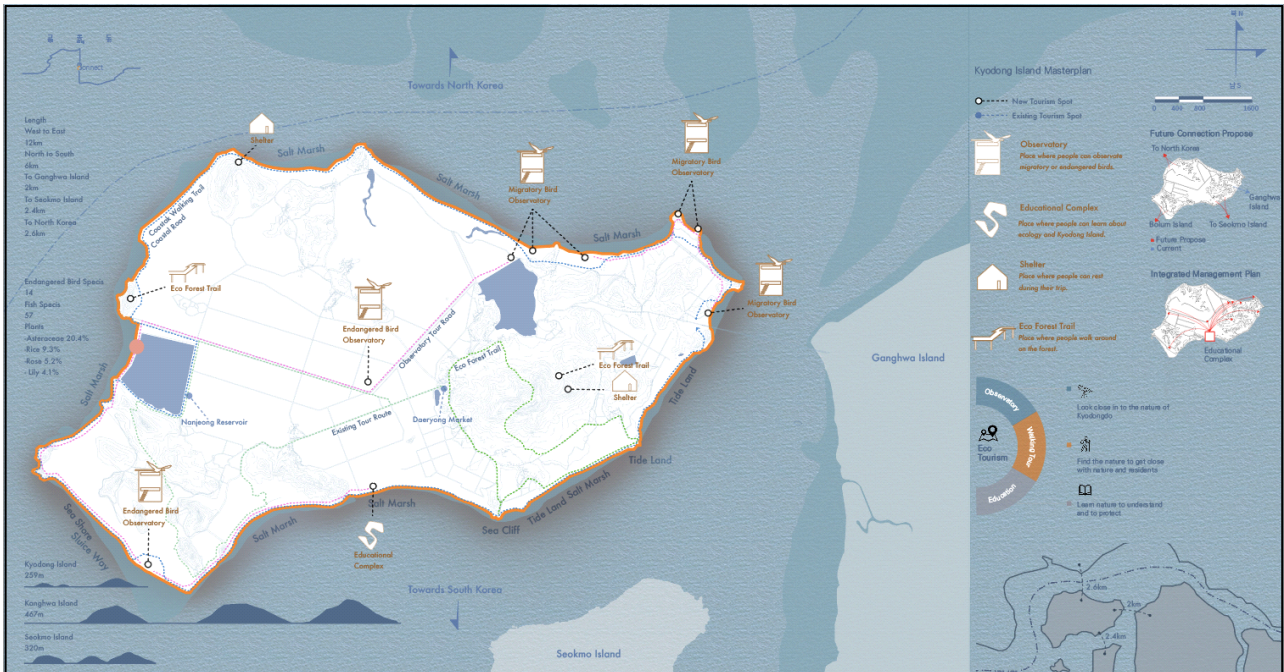


그림 1. 마스터플랜

주 1. 강정규(2018) 화성기 꺼진 최전방 마을, 55년 소음전쟁서 해방 중부 일보 2018년 05월 02일.

주 2. 최중기 외 11명(2015) 인천섬 연구총서 1 교동도, 민속원 pp. 199.
주 3. 최중기 외 11명(2015) 인천섬 연구총서 1 교동도, 민속원.

참고문헌

- Anne Spirm(1991) The West Philadelphia Landscape Plan: A Framework for Act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 Anne Whiston Spirm(1998) The Language of Landscape, Yale University Press New Haven and London.
- City of Vancouver(2014) Bird Friendly Design Guidelines Explanatory Note.
- Delue, R. Z. and J. Elkins(2008) Landscape Theory, Taylor and Francis Group.
- Henderson, J. C.(2000) War as a Tourist Attraction: The Case of Vietnam,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Research.
- Kim, S. S., B. Prideaux and J. Prideaux(2007) Using tourism to promot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nals of Tourism Research 34(2): 291-309.
- Land Use Planning & Policy(2011) Bird-Friendly Urban Design Guidelines.
- Lee, C.-K. and J. W. Mjelde(2007) Valuation of Ecotourism Resources using a Contingent Valuation Method: The Case of the Korean DMZ, New York: Elsevier, pp. 511-520.
- Migration Research Foundation(2011) McGill Bird Observatory Field Protocol for Migration Monitoring Program.
- New York City Audubon(2007) Bird-Safe Building Guidance.
- 강봉룡(2014) '섬의 인문학' 담론, 도서문화, 44: 7-35.
- 강정규(2018) 화성기 꺼진 최전방 마을, 55년 소음전쟁서 해방, 중부일보 2018년 05월 02일.
- 국립환경과학원 자연자원연구과(2010) 석모도·교동도·불음도의 자연환경, 서울: 국립환경과학원.
- 권순기, 최중기(1994) 한강하류 및 하구역의 식물플랑크톤 생태연구-1, 환경요인과 일차생산력, Yellow Sea Res 6, 1994.
- 권승현(2018) '新북방경제' 모든 길은 한반도로 통한다, 파이낸셜 뉴스 2018년 06월 20일.
- 김일한(2017) 평화의 섬 교동도를 가다, 통일과 평화(9집 1호).
- 김준, 윤미숙, 심보균(2018) 살고 싶은 섬, 가고 싶은 섬 만들자 1, 2, 3, 정책브리핑 2018년 08월 08일.
- 김준(2008) 섬관광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도서문화 32: 3-40.
- 김준(2012) 우리나라 도서개발정책의 성찰과 지속가능한 섬 만들기 전략, 도서문화, 40: 427-456.
- 남진숙(2014) 한국 현대시에 나타난 섬의 공간 및 그 의미, 도서문화, 42: 181-203.
- 박은진, 심숙경, 이상대, 최용환, 황금희(2012) 분단·대립 접경지역의 해외사례와 한반도 DMZ의 시사점, 이슈 & 진단 (44): 1-25.
- 박혜숙(2018) 접경지를 가다 北까지 단 2.5km ... '평화의 섬' 인천 강화군 교동도, 아시아경제 2018년 08월 14일.
- 백경현(2014) 추석연휴 강화 교동연륙교 24시간 통행, 신아일보 2014년 09월 04일.
- 오명근(2013) 전쟁위협에도 안보관광 방문객 증가, 문화일보 2013년 04월 22일.
- 오명근(2013) 파주 DMZ 안보관광지 관광객 500만 명 돌파, 문화일보 2013년 06월 12일.
- 윤설아(2017) 무관심속 방치된 강화 교동도 '고목근현 성', 경향신문 2017년 04월 26일.
- 이동훈(2010) 문화공간 조성을 활용한 선진 도시재생 성공사례 비교 연구: 밴쿠버 그랜빌아일랜드와 베를린 쿨트어브로이어 사례를 중심으로, 도시행정학보 23(1): 175-197.
- 이순자(2014) 지속가능한 섬지역 발전의 요건과 과제, 도서문화, 44: 161-201.
- 이준호(2017) 시간도 귀향도 멈춰버린 섬 '교동도', 브라보 이투데이 / 서울특별시 50+ 2017년 10월 27일.
- 이진환(2016) 교동도의 역사와 문화산책, 정행사.
- 정요근(2015) 교동도 역사유적의 재발견, 내일을 여는 역사, 역사기행 59: 236-251.
- 정진원, 윤현위, 이종현(2016) 인권광역시 접경지역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연구, 대학지리학회지 41(2): 255-268.
- 정희진(2018) 화성기 꺼졌다... 설레는 교동도, 인천일보 2018년 05월 01일.
- 최유주(2018) 남북평화 기원 '한강하구 평화의 배 띄우기' 재개, 가톨릭신문 2018년 08월 05일.
- 최중기 외 11명(2015) 인천섬 연구총서 1 교동도, 민속원.
- 행정안전부(2018) 8월 8일은 '섬의날' ... 섬 발전 추진대책 확정, 정책브리핑 2018년 08월 07일.